

종친일가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추태 중앙종친회장

경애하는 청주한문의 100만 종친일가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 해도 어느덧 5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벽두부터 발현된 우한 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330만 명 이상에 사망자 또한 23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 때 급격한 확산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 대처와 전 국민의 동참

으로 최근 다소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확진환자는 1만 명 이상에 사망자 또한 250명에 육박하고 있어 아직은 낙관할 수 없으며 자칫 제2차 집단감염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주한문의 종친일가여러분!

3월과 4월은 기성전 제향과 무강왕·왕비릉 대제, 청한각 시조부군 탄신제 등 선조님의 유지를 기리며 춘계향사를 봉행하는 절기이고 우리는 송조돈목(崇祖敦睦)을 덕목으로 명문가의 전통과 자긍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일가분들의 건강과 안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초부터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

종 집회와 행사의 자제를 요청하고 등교 시기까지도 연장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전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종친회는 종친일가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당국의 감염 예방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부득이 춘향제를 고유례로 최소화하여 엄숙하게 봉행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통을 계승해온 뜻 깊은 향사를 종친일가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으며, 2020년도 정기총회 또한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친일가여러분!

현재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

도의 충격이고, 앞으로도 그 충격이 더욱 커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극복해온 저력이 있듯이 또한 한마음으로 힘써 대처하면 조속한 시일 내 종식되리라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건강과 안전은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일가분들의 건승하심과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밝은 모습으로 한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회장 한추태

춘계향사 고유례로 간소화 봉행

문성대왕 제향, 무강왕·왕비릉 대제, 청한각 시조부군 탄신제



무강왕릉



청한각

중앙종친회(회장 추태)는 지난 3월 28일(음 3월 5일) 기자조선(후조선)을 건국한 문성대왕 기자(文聖大王 箕子)를 추모하는 춘계제향(기성전, 증평군 도안면 노암1리 소재), 4월 7일(음 3월 15일) 무강왕과 무강왕비의 춘향대제(익산 쌍릉, 익산시 팔봉면 석왕동 소재)와 시조 태위위양공부군 탄신제(청한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소재)를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당국의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일가종친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 부득이 추태중앙종친회장, 종인 도유사, 도영제전부장이 고유례로 간소화

하여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추태회장은 춘향제의 간소화 경위와 송구한 심정을 전국의 후손을 대표해 선조님께 고하는 예를 올린 후 조속한 시일 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가을향사에는 예년과 같이 전국의 일가분들이 함께 참례해서 송조돈목의 장으로 성황리에 봉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증평기성전(箕聖殿)은 당초 약 250여년 전 청주한씨 21세 한시태할아버지께서 도안면 노암리 산 35-1번지에 기성사 사당을 건립하여 기자영정을 모시고 150여년간 제향을 모셨으나, 함흥 기성전 제향에

참여인원이 감소되고 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제향을 모실수가 없어 1913년에 26세 한응각, 27세 한예기 두분이 함흥에 올라 영정과 향나무 5본을 증평으로 모셔왔다. 1914년 한응각(韓應珪)이 백미 50가마의 사재와 노암리 임야 500평과 대지 600평에 사당을 이축하여 영정을 옮겨 봉안하였고 향나무 5그루는 사당 뒷산에 심었다. 현재의 기성전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솜을대문에 홍삼문, 내삼문, 외삼문에 담장이 둘러있으며 영정은 이복화가 김이삼이 모사하였다. 사당이 100여년이 지나면서 노

후화되어 무너지기 직전에 한갑수회장의 주선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2년도에 새로 건립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붕 일부가 무너져 한추태회장이 홍성열증평군수의 지원으로 보수하였다. 기성전은 증평군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어 증평군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유림과 정혜공과 책임 하에 매년 음력 3월 5일 제향을 봉행해 오다가 현재는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주관으로 봉행하고 있다.

무강왕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41세 애왕(哀王)이자 삼한(三韓)중 하나인 마한국(馬韓國)을 세운 태조(太祖)이며, 마한 말년의 8세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 우랑(友諒)이 상당(上黨)한씨(청주한씨)가 됨으로써 청주한씨의 선조가 된다. 따라서 청주한씨는 왕족의 후예로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이며 명문중의 명문이다. 원왕의 장남 우평(友平)은 북원(北原) 선우(鮮于)씨가 되고 3남 우성(友誠)은 덕양(德陽) 기(奇)씨가 되었다.

청한각(淸韓閣)은 시조부군(휘 란)의 탄생유지로 1000여년동안 방치되어 오다가 2009년 탄생유지성역화 사업이 발의된 이후 후손들의 헌성금 10억원으로 부지를 확장하고 기적비와 송시비 등을 세우고 조경하여 2011년 9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청주한문의 성지이다. 성역화사업과 병행해서 갑수회장 주관으로 66억원의 재정을 지원받아 난곡전을 정비하고 진입도로를 확·포장하였으며 마을 진입로 입구 지방도와 난곡교를 확장 개축함으로써 난곡마을의 오랜 숙원사업까지도 성취를 하였다. 매년 4월 둘째 주 토요일 중앙회 주관으로 봉행하는 탄신제는 마을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추·모·봉 삼재선조 경자년 시향제 봉행

추·모·봉(追·慕·鳳) 삼재선조(三齋先祖)의 경자년(庚子年) 시향제가 지난 3월 24일(음력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단축 및 간소화하여 삼재관리위원회(회장 철호) 주관 아래 관내 임원진 및 최소단위의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오전 11시에는 6세 예빈경부군(禮賓卿府君)의 추원재(追遠齋)에서, 당일 오후 2시에 7세 문혜공부군(文惠公府君)의 모원재(慕遠齋)에서, 25일에는 8세 제학공부군(提學公府君)의 봉강재(鳳崗齋)에서 각각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예빈경부군의 제례봉행에 앞서 철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부득이 일정을 단축하고 최소의 인원만으로 간소화하여 제례를 봉행하게 됨에 일가분들의 양해 및 제례봉행에 협조와 더불어 가내 두루 건강과 평안을 당부하였다.

예빈경공(禮賓卿公)은 고려 때의 문신(文臣)으로 휘(諱)는 광윤(光胤)이다. 고려 의종(高麗 毅宗) 때 과거(科擧)에 급제(及



예빈경공 시향제(전년도 자료사진)

第)하여 관작(官爵)이 조정대부예빈경(朝正大夫禮賓卿)을 역임(歷任)하고 원나라(元)에서 금자광록대부수사공좌복야(金紫光祿大夫守司空左僕射)의 증직(贈職)을 받았다. 묘소(墓所)는 전남 영광군 진량면

지장산하 신사동 임 좌병향(全南 靈光郡 陳良面 支藏山下 新寺洞 壬坐丙向)인데 中間世代에 실호(失護)되어 오랫동안 吳, 姜, 金, 等 民間인들이 모점(冒占)하고 있었으나 영조 17년(1741)에 후손인 세구,

희맹, 일주, 증언(世龜, 希盟, 日周, 重彦)등이 묘소를 찾아 묘비(墓碑)의 13字 즉 조정대부행예빈경한광윤지묘(朝正大夫行禮賓卿韓光胤之墓)라는 글자와 뒷면에 나주 진씨(羅州 陳氏)외에 아들 누구, 관직이 무엇 등등(子某, 官某 等等)문자가 확인되므로 다음해(1472년) 관(官)에 제소(提訴)하여 판결(判決)을 받은 후 산소(山所)를 개봉축(改封築)하고 위토(位土)를 마련하였으며 전라감사(全羅監司)로 재임(在任)한 익모(翼暮)가 재각(齋閣)을 짓고 위토(位土)를 더 마련하였다. 또한 계진(啓震)은 영광군수(靈光郡守)로 와서 표석(表石: 墓表)을 세웠고 후에 용구(用龜)는 전라도 순찰사(全羅道 巡察使)로 와서 성묘(省墓)하고 제수(祭需)를 더욱 풍성하게 조력(助力)하고 화사회(花樹會)를 설립(設立)하여 일가간의 우의(友誼)를 두텁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 종친회(宗親會)의 효시(嚆矢)이다. 공의 배위(配位)는 통의군부인 나주 진씨(通義郡夫人 羅州 陳氏)인데 호장(戶長) 각(愨)의 따님으로 공과 승(承)이다.

사숙공·평간공부군 한식절사 봉행

9세 사숙공부군(思肅公府君, 諱 渥)의 2020년도 경자년 한식절사(寒食節祀)가 사숙공추모회(회장 규동)와 평간공봉찬회(회장 태교) 주관으로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관계 임원진 10여명의 후손들로 참례를 최소화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87번지 소재 선영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이어 인근 일대에 묘소가 있는 10세 평간공(平簡公, 諱 公義), 11세 문경공(文敬公, 諱 脩), 충간공(忠簡公, 諱 理), 판사공(判事公, 諱 齊) 부군의 한식절사도 봉행되었다.

사숙공(원종 15년, 1274년~충혜왕 3년, 1342년)은 고려 충선(忠宣), 충숙(忠肅), 충혜(忠惠)왕조 때의 문신으로 일찍이 과거



에 급제하여 여러 현관(顯官)을 역임하였으며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에 책봉되고, 삼중대광도첨의우정승(三重大匡都僉議右政丞)에 올랐으며 69세에 별세했다.

(총무 성익)

문간공부군(휘 尙敬) 기신제 봉행

문간공부군(12세.휘 상경)의 597週年 기신제가 지난 3월 30일 (음 3월 7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의 엄중한 환경 속에도 문간공종중의 동수회장을 비롯 김참공, 문양공, 문정공, 참판공, 양평공문중에서 3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샘밭길 3-12 (금곡동)에 소재한 신재묘(信齋廟)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초헌관 東秀문간공과 회장, 아헌관 錫九문정공과회장, 종헌관 革東양평공과 고문, 축관에 東權일가가 분방되었으며 鍾顯일가의 집례로 봉행되었다. 동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기신제에 참여한 일



가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문간공부군은 문경공 유항(柳港) 수(脩)의 아들이자 평간공 공의(公義)의 손자로서 공민왕 10년 1360년에 출생하였고 자(字)는 숙경(叔敬) 호(號)는 신재(信齋)이다. 조선익재 개국공신(朝鮮翼載開國功臣)에 책록되어

충정공(휘 應寅) 탄신제(誕辰祭)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忠靖公派宗會(회장 춘희)는 지난 4월 26일(음 4월 4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소재 충정공 묘사(廟祠)에서, 농번기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조상을 생각하는 일념으로 40여명의 많은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정공 탄신(誕辰) 제466주년 봉제사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재실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탄신제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초헌관에 春熙회장, 아헌관에 相弼 일가(하남시), 종헌관에 相俊일가(군포시), 축관에 相天일가(수원시)가 분방되었으며 京烈일가(여주시)의 집례로 탄신제를 봉행하였다.

탄신제 봉행 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다음 회계년도 주요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임원개선을 통해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春熙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하여 유임하였으며 삼문 및 담장공사는 관리사의 시공사와 협의하여 법적 하자 없이 재 공사하여 준공 후 다시 협의하기로 결의하였다.

春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종원



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충정공(명종 9년, 1554~광해군 6년, 1614)은 선조 때의 문신(文臣)이요 원훈(元勳)으로 선조 9년(1576)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팔도도순찰사, 6조판서(이조, 예조, 호조, 공조, 병조, 형조)를 역임하시는데(호조판서는 후에 또다시 2번이나 역임) 등 조선시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기록을 남기셨으며, 1606년 10월에 우의정에 올랐다. 또한 중국어에 능통하여 지금의 북경을 4회에 걸쳐 주청사 서장관(書狀官)으로 또는 진주정사(陳奏正使)로 다녀오시었으며, 임진왜란 때 요동에 건너가 이여송장군을 설득시켜 5~6만 병사를 지원받아 왜적을 물리치고 접반관(接伴官)으로 이여송장군 옆에서 같이 생활하며 나라를 잃을 뻔 했던 위기를 해결한 공을 세우신 대표적인 분이다. (총무 상길)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세자사 서원부원군(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世子師 西原府院君)에 봉하였다. 세종 6년 1423년 3월 7일 64세로 하세하셨

고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125(丑坐)에 안장하시었다.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시다.

(相烈 문간공종중상임부회장)

청한장학회 2020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전년도 결산(안) 및 임원 개선 등 의결



5월 16일, 제20회 장학증서 수여식

(재)청한장학회(이사장 우동)는 지난 3월 27일 우동이사장을 비롯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과 추태중앙종친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곡동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안심의와 장학재단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년도 사업실적과 감사보고에 이어 세입·세출 결산(안)과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2020년도 사업예산(안), 임원개선, 과실금액 증대를 위한 기본재산 운영방안 등의 심의 승인에 이어 제20회 장학금 지급액 및 배정기준을 확정된 후 오는 5월 16일(토) 청주 무농정인근 여명회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행키로 결의하였다.

우동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꼭 필요하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운영해 나가자고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약정된 출연기금은 차질 없도록 이행 노력하고 청주한문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에 임원분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였다.

추태중앙회장은 훌륭한 이사장과 함께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음은 청주한문의 큰 축복이다.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 명실상부한 청주한문의 거대장학재단으로 우뚝 세우고 소기의 목적을 실현해 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보필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서울시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상락 신임회장 선임



서울시종친회(회장 광수)는 지난 1월 말 영등포 소재 산청생오리 식당에서 광수회장을 비롯 각 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개선을 통해 상락(相洛, 장도공파 32세, 사진)회장을 새로이 선임하였다.

상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족함이 있는 사람에게 서울시종친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감사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소감을 전하

고 종사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각 구 회장단과 종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지도편달로 성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상락신임회장은 35년간 교육계에 종사하였고 그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그 후 봉사대학을 수료한 후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2007년도 태안기름 유출 방제 봉사활동을 비롯 대학병원의 환자안내 및 홍보, 현충원 지킴이, 동작구 푸드마켓 홍보 등 그동안 8천여 시간 봉사한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장 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동작구종친회장(7년), 중앙종친회 자문위원, 서울종친회 감사 등 종사에 적극 참여하며 활동을 하고 있다.

알림

1. 시조탄생유지「淸韓閣」은, 주말(週末)에는 삼문(三門)이 열려있으나 주중(週中)에는 내부 시설물의 보안상 관계로 잠겨 있습니다.
2. 따라서「淸韓閣」을 주중(週中)에 참배, 참관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전날 저녁때나 당일 이른 아침 <043-742-4982>로 현지 관리인 김승수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삼문을 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 주 한 씨 중 앙 종 친 회 -



시조탄생유지 淸韓閣 전경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일가 축하합니다!

谷神不死!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청주한문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고순 (5명)



한 기 호 (1952년생)

- 미래통합당
-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 육군사관학교
-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 18대, 19대 국회의원



한 무 경 (1958년생)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 이화여대대학원 문헌정보학 박사
- 효림산업대표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한 정 애 (1965년생)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 병
- 부산대학교환경대학원
- 노팅엄대학교 산업공학박사
- 19대, 20대 국회의원



한 병 도 (1967년생)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 을
- 원광대학교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17대 국회의원



한 준 호 (1974년생)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 을
- 연세대, 카톨릭대학원
- MBC아나운서
- 대통령비서실국민소통행정관

시조제단비 (始祖祭壇碑) 정비

충북 유형문화제 제169호

청주한씨 시조제단비는 청주를 본관으로 하는 대표적인 씨족인 청주한씨 시조(휘 蘭)를 제사하기 위하여 유적지에 제단을 마련하고 후손들이 이 터를 기억하도록 세운 사적비이다.

1605년 청주목사 겸 청주진병마절제사로 부임한 한백겸(韓百謙)선조가 시조의 유적을 고증하여 찾고, 동생인 이조참판 한준겸(韓浚謙)선조가 시조의 내력을 상세히 서술한 비문을 지었다.

비문에는 당시 시조부군의 유기(遺基)를 찾아 위토(位土)를 마련하고 제단을 쌓아 담을 둘러 경계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비석만 남았고 비문도 거친 화강암에 새긴 관계로 풍화가 심한 상태여서 읽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369-6에 세워진 제단비는 땅 속에 묻혀버린 받침돌 위에 비몸과 지붕돌을 올리고 있는데 비몸이 약간 서쪽으로 기울었으며 주변이



시조제단비, 정비 전

숲으로 우거져 그동안 출입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운동동일원에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 지형과 환경이 정비됨에 따라 출입과 관리가 용이해 졌다. 정비된 제단비 주변으로는 경계 펜스를 설치하였고 시조제단비의 내용과 시조유기서사비문을 기록한 안내



시조제단비, 정비 후

판이 병행되어 세워져있다. 17세기 역사지리학의 대가에 의해 옛 유허(遺墟)가 고증되어 세워진 비석이란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청주한씨 시조제단비는 충북 유형문화제 제169호로 지정되었다. (1990. 12. 14. 지정). 2010년 11월에 비문을 번역·각명한 모형비를 시조묘

역에 수립하였다.

지난 2월 초 정비된 시조제단비를 찾은 추태중앙회장은 부족하나마 출입과 관리가 용이하게 정비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가분들께서도 선조의 유물과 유적의 수호관리에 더 많은 관심으로 성원이 있기를 당부하였다.

청한산악회 청계산 산행

청한산악회(회장 삼랑)는 지난 4월 26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을 둘러싼 푸른 산자락 청계산을 찾아 안전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겸한 정기산행을 하였다. 서울 양재동과 과천시, 성남시, 의왕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청계산(618m)은 산세가 수려하고, 2km에 이르는 계곡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공원, 사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가족산행의 명소로서 등산로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관악산과 함께 서울을 지켜주는 '좌청룡 우백호'의 명산이기도 하다.

삼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행을 연기하게 됨을



전하고 특히 건강관리에 유념해서 코로나19가 조속히 종결되고 더욱 건강한 가운데 안전하고 보람된 산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어려운 가운데 많이 참석해주신 회원분들과 상락서울회장, 강화도에서 참석한 상태일가께 특별히 감사함을 표하였다.

비단제문(碑壇祭文)

후손(後孫) 청주목사(淸州牧使) 백겸(百謙)

『設壇時祭文, 譯文』

옛날 고려(高麗) 건국당시(建國當時) 삼한국(三韓國)을 통합(統合)할 때 우리 선조(先祖) 태위공(太尉公)은 명군(明君) 만나 잘 섬겼소.

군량(軍糧)풀어 호군(樞軍)하고 큰 공적(功績)을 성취(成就)하여 벽상공신(壁上功臣) 되시었고, 대를 이어 충신(忠臣)나니 고려왕조(高麗王朝) 五百年에 우리韓氏 번창(繁昌)하여, 동방(東方)의 망족(望族)으로 고관대작(高官大爵) 배출(輩出)하니 대장(大將) 소장(少將) 정승(政丞) 판서(判書) 대대로 그침 없고, 종사(宗嗣)이 왕비(王妃) 납서 성자신손(聖子神孫) 탄육(誕育)하니,

좋은 씨앗 얻은 후에 좋은 곡식 거두는 법 어느 조상(祖上)德일런가 내가 무엇 부러우랴. 생각건대 이내몸도 後孫으로 태어나서 내어주시는 음덕(蔭德)으로 청주목사(淸州牧使) 도임(到任)하니, 비갈(碑碣)하나 표(表)없으니 산소(山所)인들 뉘 알손가.

다행(多幸)이도 유허(遺墟)있어 옛 이름을 傳하옵기 단(壇)을 모으고 제사(祭祀)드려 영모지정(永慕之情) 사롭니다. 여러 일가 다 모여서 재계하고 잔 드리며 높은 공덕(功德) 추모(追慕)하니 어제인 듯 비감하오. 世代가 멀어짐을 더욱 슬퍼 우나이다.

〈비단제문 원문 및 시조유기서사비문(원문·역문)은 제7교 정유보 상세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수도권 청장년회 도봉산 산행

서울·수도권청장년회(회장 상남)는 지난 4월 12일 회원 약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의 명산 도봉산의 무수골을 찾아 안전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겸한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높이 740m의 도봉산은 교통이 편리하고 산세가 아름다워 사계절 두루 많은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특히 무수골(無愁谷)은 근심이 없는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복잡한 일상의 찌든 잡념을 떨쳐내고 편안한 안식과 함께 오롯이 자연 속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생태분위 조성으로 산행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1월 이후로 연기된 시산제는 코로나19의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시행하였다.

중앙중친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중앙중친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 시 : 2020년 5월 28일 (목) 11:00
- 장 소 : K-Turtle (구 거구장, 마포구 백범로 23, 02) 715-3611~3)
지하철 2호선 신촌역 6번출구 도보 5분소요
- 의 안 : 1) 경과보고/감사보고 2)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3)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4) 종사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 1) 참석대상 : 임원 및 대의원 2) 회비 : 20,000원 3) 안내문 별도 발송
4) 참석 여부를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720-6370)
-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일정 및 내용 변동 시 별도 공지 (홈페이지, 안내문 등)

2020년 4월 청주한씨중앙중친회 회장 한 추 태

운영회비(1~4월) 단위:원	
이 름	금 액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0,000
기일 부회장(현령공파회장)	1,000,000
덕규 부회장(공안공파회장)	1,000,000
석구 부회장(문정공파회장)	1,000,000
진수 부회장(검교참판공파회장)	1,000,000
갑수 부회장(대전시 회장)	500,000
동수 종무부회장(경기 안산시)	500,000
삼랑 부회장(청장년전담)	500,000
상락 부회장(서울시회장)	500,000
연동 수석부회장(대전 중구)	500,000
영교 부회장(전북도회장)	500,000
정식 부회장(제주도회장)	500,000
찬규 부회장(충의공파회장)	500,000
강 자문위원(경기 안산시)	300,000
기연 겸임이사(전북 전주시)	300,000
광수 자문위원(서울 영등포구)	200,000
기천 자문위원(인천 동구)	200,000
길수 자문위원(서울 광진구)	200,000
복섭 자문위원(전남 강진군)	200,000
영수 자문위원(서울 서대문구)	200,000
창섭 자문위원(경기 강화군)	200,000
철수 자문위원(서울 관악구)	200,000
승남 감사(광주 북구)	200,000
규석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200,000
기달 겸임이사(서울 종로구)	200,000
남교 겸임이사(서울 동대문구)	200,000
도영 겸임이사(인천 중구)	200,000
동권 겸임이사(경기 군포시)	200,000
상웅 겸임이사(참의공나주총중)	200,000
춘섭 겸임이사(영흥공파회장)	200,000
현수 겸임이사(조직부장)	200,000
귀성 겸임이사(전북 전주시)	100,000
기만 겸임이사(서울 송파구)	100,000
기성 겸임이사(서울 종로구)	100,000
기창 겸임이사(충남 당진시)	100,000
동명 겸임이사(서울 영등포구)	100,000
부동 겸임이사(부산 남구)	100,000
상일 겸임이사(서울 노원구)	100,000
상필 겸임이사(충남 청양군)	100,000
성규 겸임이사(경기 광주시)	100,000
수창 겸임이사(서울 성동구)	100,000
우선 겸임이사(서울 서초구)	100,000
윤동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종언 겸임이사(서울 종로구)	100,000
화교 겸임이사(경기 부천시)	100,000
동락 운영위원(서울 강북구)	100,000
동주 운영위원(경기 안산시)	100,000
동후 운영위원(경기 안산시)	100,000
동훈 운영위원(경기 파주시)	100,000
상기 운영위원(충의공파)	100,000
승욱 운영위원(경기 안산시)	100,000
중수 운영위원(서울 서대문구)	100,000
합 계	14,900,000

일반찬조헌성금(1~4월) 단위:원	
이 름	금 액
기권(서울 성동구)	600,000
합 계	600,000

개인종보비(1~4월) 단위:원	
이 름	금 액
기원(울산 남구)	100,000
만수(경기 포천시)	100,000
만진(경기 평택시)	100,000
삼랑 청장년부회장(서울 관악구)	100,000
석춘(대전 서구)	100,000
종근(전북 부안군)	100,000
창영(경남 남해군)	100,000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000
판서공송산종중	60,000
광률(부산 연제구)	50,000
기성(경기 군포시)	50,000
만택(서울 강남구)	50,000
용수(경기 고양시)	50,000
우선 겸임이사(서울 서초구)	50,000
원교(서울 송파구)	50,000
익희(전남 영광군)	50,000
조정(서울 마포구)	50,000
철희(서울 강남구)	50,000
추태 회장(중앙회장)	50,000
훈재(강원 춘천시)	50,000
범우(서울 강동구)	40,000
기석(서울 강동구)	30,000
기인 자문위원(경남 창원시)	30,000
문교(충북 청주시)	30,000
병호(충남 부여군)	30,000
삼식(강원 원주시)	30,000
상갑(서울 강동구)	30,000
상복(경기 안성시)	30,000
상준(경기 군포시)	30,000
상태(서울 은평구)	30,000
영상(경기 양평군)	30,000
영섭(전남 나주시)	30,000
용관(서울 송파구)	30,000
원렬(전북 완주군)	30,000
윤교(경북 포항시)	30,000
의박(전남 순천시)	30,000
인석(경기 하남시)	30,000
인수(서울 강북구)	30,000
일웅(경기 남양주시)	30,000
장석 운영위원(충남 당진시)	30,000
재명(서울 노원구)	30,000
재훈(경북 문경시)	30,000
정수(광주 동구)	30,000
정웅(서울 송파구)	30,000
정준(서울 은평구)	30,000
종윤(전남 나주시)	30,000
종훈(경기 구리시)	30,000
준희(서울 서초구)	30,000
창수(경기 안산시)	30,000
천석(서울 종로구)	30,000
철수 자문위원(서울 관악구)	30,000
태진(경북 경주시)	30,000
평전(경기 수원시)	30,000
호석(경기 고양시)	30,000
계희(충의공파)	20,000
관희(충의공파)	20,000
규덕(경기 부천시)	20,000
규천(경기 평택시)	20,000
규학(서울 마포구)	20,000
균선(대전 서구)	20,000
기달 겸임이사(서울 종로구)	20,000
기대(서울 강동구)	20,000
기천 자문위원(인천 동구)	20,000
길수(세종시 전통면)	20,000

이 름	금 액
다교(대전 서구)	20,000
대화(경북 경주시)	20,000
덕수(서울 금천구)	20,000
도수(충남 청양군)	20,000
도영 겸임이사(인천 중구)	20,000
동명 겸임이사(서울 영등포구)	20,000
동수 부회장(종무부회장)	20,000
동희(충의공파)	20,000
두식(서울 종로구)	20,000
만홍(서울 노원구)	20,000
명희(광주 서구)	20,000
무희(충의공파)	20,000
문석(충의공파)	20,000
문수(충의공파)	20,000
문희(충의공파)	20,000
병덕(경기 화성시)	20,000
병현(경기 김포시)	20,000
복규(충의공파)	20,000
봉기(경기 용인시)	20,000
봉춘(대구 수성구)	20,000
상기 운영위원(충의공파)	20,000
상길(경기 수원시)	20,000
상락 부회장(서울시회장)	20,000
상만(경기 평택시)	20,000
상무(경기 화성시)	20,000
상수(충남 서산시)	20,000
상욱(충남 청양군)	20,000
상은(충의공파)	20,000
상일 겸임이사(서울 노원구)	20,000
상진(충남 태안군)	20,000
상태(서울 도봉구)	20,000
상태(인천 강화군)	20,000
상협(경기 시흥시)	20,000
상훈(경기 성남시)	20,000
상훈(경기 수원시)	20,000
세동(경기 용인시)	20,000
수원 노림익상종중	20,000
신희(충의공파)	20,000
양석(충남 당진시)	20,000
양섭(전남 화순군)	20,000
양수(경남 창원시)	20,000
양수(충의공파)	20,000
양현	20,000
영성(충북 청주시)	20,000
용수(전북 남원시)	20,000
우식(강원 강릉시)	20,000
운석(충남 서천군)	20,000
운열(경기 의왕시)	20,000
윤동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20,000
윤석(경기 부천시)	20,000
이규(전북 전주시)	20,000
장규(충의공파)	20,000
재동(경기 용인시)	20,000
재식(경남 함양군)	20,000
정서(서울 강북구)	20,000
정석(서울 금천구)	20,000
정수(서울 광진구)	20,000
정식 부회장(제주도회장)	20,000
정현(서울 동작구)	20,000
종대(경기 하남시)	20,000
종찬(충의공파)	20,000
준석(경남 하동군)	20,000
중섭(경기 안산시)	20,000
진수 겸임이사(인천 강화군)	20,000
찬규 부회장(충의공파회장)	20,000
창섭 자문위원(경기 강화군)	20,000

이 름	금 액
철수(서울 도봉구)	20,000
충수(충의공파)	20,000
택규(충의공파)	20,000
홍석(대전 동구)	20,000
홍섭(경기 양주시)	20,000
화교 겸임이사(경기 부천시)	20,000
기섭(서울 동대문구)	10,000
창원(경기 안성시)	10,000
합 계	4,100,000

단체종보비(1~4월) 단위:원	
이 름	금 액
감사공안산종중	500,000
검교참판공파종중	200,000
부산영도구종친회	200,000
전북도종친회	200,000
평해공파수원종중	200,000
고성군종친회	100,000
낙안공종친회(복섭)	100,000
대전시종친회	100,000
문양공파능내동종중	100,000
합 계	1,700,000

장학기금 납부내역(1~4월) 단위:원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2103	창석(대전 서구) 대전종친회	400,000	1,000,000
122	기인(경남 창원시)	200,000	15,400,000
258	철수(서울 관악구)	100,000	3,500,000
	합 계	700,000	

무강왕릉수호대책위원회 헌성금(2020.4.30현재) 단위:원	
이 름	금 액
추태 중앙회장	10,000,000
충북도종친회(회장 장훈)	2,000,000
대구경북종친회(회장 태락)	1,500,000
대전종친회(회장 갑수)	1,000,000
부산시종친회(회장 동경)	1,000,000
충의공파종중(회장 찬규)	1,000,000
한삼랑(청한산악회 회장)	1,000,000
회양공파종중(회장 규백)	1,000,000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0,000
문양공파종중(회장 석희)	600,000
문간공파종중(회장 동수)	500,000
절도공경산종중(효근)	500,000
참의공하총지공파종중(회장 근준)	500,000
참판공파종중(회장 상량)	500,000
현령공파종중(회장 기일)	500,000
인천시종친회(회장 천식)	300,000
참의공파안산종중	300,000
청한예학회	300,000
판관공파종중(회장 연동)	300,000
팔봉종친회(회장 광운)	200,000
강, 충수(참의공파안산종중)	100,000
참의공파안산종중(강)	100,000
강락 자문위원(대구 서구)	100,000
만교(장도공파회장)	100,000
삼재관리위원회(회장 철호)	100,000
준석 자문위원(서울 동작구)	100,000
창희(참판공파)	100,000
합 계	24,7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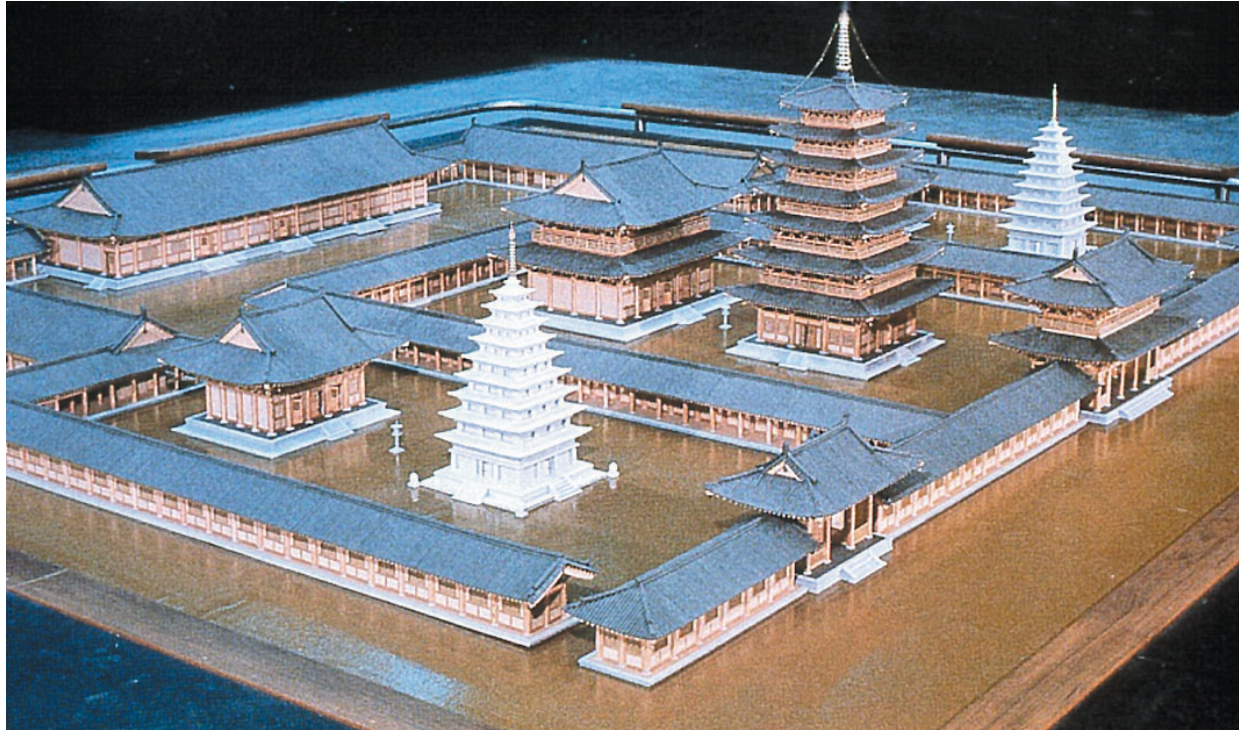
후마한의 기준이 익산의



안 창 범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본원사상 연구 만35년)

본 논고를 게재토록 송고해주신 안창범교수(사진)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주한문 종원분들과 문화·역사계 관계자 및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다만 지면 관계 상 논고의 차례 중 “서, 1. 문제의 제기 2. 백제 무왕이 부여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3. 익산의 금마와 후마한 무강왕의 익산 미륵사 창건”은 263호에 “4. 삼국유사 무왕 편의 모순 5. 옷점 · 결론 · 학풍”의 내용은 264호에 나누어 게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한국 최대의 사찰지 미륵사(마한의 도읍지 금마 용화산 남쪽기슭) 복원 모형도

본보 263호 기 게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B.C.2세기 초 후마한 무강왕이 미륵사를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일연스님은『삼국유사』에서 전북 익산의 미륵사를 백제 제29세 무왕(A.D.600-642)이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착각하는 이유는 익산의 미륵사는 B.C.2세기 초에 창건되었고, 인도불교는 A.D.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우리나라에 전해되었으며, 우리나라에 도 · 불 · 유 3교일체의 고유종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 학계는 모르고 있다. 여기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미륵사지의 석탑에 대한 해석에 착각이 생긴 것이다.

둘째 착각하는 이유는 후마한의 54국 가운데 百濟가 있었다. 후마한왕 箕準이 세운 나라가 百濟이다.

삼국시대 溫祚王이 세운 나라도 국호를 百濟라 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착각하는 이유는 실증사학자들도 고고학과 더불어 文獻史學을 병행하여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고고학만을 연구하고, 문헌사학을 소홀히 함으로써 年代에 착각이 생겼다는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2. 백제 무왕이 부여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3. 익산의 금마와 후마한 무강왕의 익산 미륵사 창건

<263호에 이어>

4. 삼국유사 무왕 편의 모순

그러면 『삼국유사』무왕 편의 기록은 어떠한가? 내용 그대로 전제한다.

제30대(삼국사기에는 29대, 필자의 주) 무왕(古本에는 무강(武康)이라 하였으나 잘못이다.

백제에는 무강(武康)이 없다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연못의 용(龍)과 정을 통하여 장(璋)을 낳고 아이 이름을 서동(蓍童)이라 하였으며, 그 도량이 커

서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항상 마(蓍)를 캐어 팔아서 생활을 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善花 혹은 善化)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 서울로 가서 마를 동네 아이들에게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져서 따르게 되었다.

이에 동요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꺾어 부르게 하였는데 그 노래에 “선화공주님은 남 그스기(몰래) 얻어(嫁) 두고 서동방(蓍童房)을 밤에 몰(몰래) 안고 가다”라고 하였다.

동요가 서울에 퍼져 대궐에 까지 알려지니 백관들이 임금에게 극간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향 보내게 하였다.

장차 떠나려 할 때, 왕후가 순금 한 말을 노자로 주었다. 공주가 귀향처로 갈 때 서동이 도중에서 나와 맞으며 시위하고 가고자 하였다.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지만 우연히 믿고 기뻐하여 따라 갔으며 몰래 관계하였다.

그 후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게 되고 동요와 맞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함께 백제로 가서 모후(母后)가 준 금을 꺼내어 생계를 도모하려하니 서동이 크게 웃으며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은 황금입니다. 한평생 부자가 될 만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마를 캐던 곳에 황금이 흩과 같이 쌓여 있소.” 공주가 크게 놀라면서 말하였다.

“그것은 천하의 귀한 보배인데 당신이 지금 그것이 있는 곳을 알거든 그 보물을 가져다 부모님 궁전에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동이 “좋다” 하고 금을 모아 구름과 같이 쌓아놓고 용화산(龍華山 혹은 彌勒山) 사자사(獅子寺, 동국여지승람에는 獅子寺)의 지명법사(知命法師)에게 가서 금 수송의 방책을 물었다.

“내가 신력(神力)으로 보낼 터이니 금을 가져 오시오” 하였다.

공주가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 앞에 갖다 놓으니 법사가 신력으로 하루 사이에 신라 궁중에 갖다 놓았다.

진평왕이 신비로운 변화를 이상히 여겨 더욱 존경하며 항상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서동이 이로부터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

하루는 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다가 용화산 밑의 큰 못가에 이르자 못 가운데서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나타남으로 수레를 멈추고 경례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아뢰기를 “나의 소원은 이곳에 큰 절을 세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허락하고 지명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었더니 신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미륵삼존(彌勒三尊)과 회전(會殿) · 탑(塔) · 낭무(廊廡)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액호(額號)를 미륵사(彌勒寺 : 국사에는 미륵사를 왕흥사(王興寺)라 하였다) 하니 진평왕이 여러 공인을 보내어 도와주었다.

지금까지 그 절이 있다.(三國史에는 무왕을 법왕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여기에는 독녀 ‘獨女’의 아들이라 전하니 자세치 않다). 이상이 문제되는 내용이다.

1) 민족종교를 무시하고, 외래종교를 숭상하는 나쁜 판단을 낳았다.

후마한 무강왕이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한 때는 중국 한(漢)나라 혜제(惠帝) 정미(丁未) 년이다.

그때는 B.C 2세기 초로서 인도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전이다.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은 불교 승려이다.

여기에서 후마한의 무강왕이 미륵사를 창건할 수 있느냐 하고, 그것을 삼국시대의 백제 29세 무왕과 결부시키게 된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800년 내지 900년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마한시대의 미륵사를 삼국시대의 미륵사로, 마한 무강왕의 미륵사를 백제 무왕의 미륵사로, 무강왕의 선화부인을 무왕의 선화부인으로, 무강왕과 선화부인의 무덤인 쌍릉(雙陵)을 무왕과 선화부인의 쌍릉으로 끌어내리게 된다.

곧 후마한왕 기준이 창건한 미륵사를 백제 29세 무왕이 창건한 것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7면에 계속>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6면에 이어〉

익산 미륵사의 주인공을 무강왕에서 무왕으로 바꾸는 것이다.

마한시대의 불교문화를 고려시대의 불교문화로 끌어 내리는 것이다.

마한의 역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일연스님은 역사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연 스님은 고의는 아니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순된 판단을 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마한의 역사를 완전히 역사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고유종교를 무시하고, 불교만을 부각시킨 것이다.

여기에 불교사상은 인격도야에 그 이상의 종교가 없다고 하겠으나, 국가적 민족적으로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이 외래종교로 고민하는 것도, 그 기원은 마한의 역사를 없애고, 불교만을 높인 데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2) 익산의 미륵사와 부여의 미륵사에 대하여 혼동하고 있다.

① 법왕금살(法王禁殺) 편의 본문에서 처음에 부여의 절터를 닦을 때 왕흥사라 했었으나, 절이 완성되고 난 후 미륵사라 했다. 무왕(武王) 편에는 주(註)를 인용하여 익산의 미륵사를 왕흥사라 하였다.

② 무왕 편의 본문에 무왕과 선화부인이 익산의 미륵사를 함께 지은 절 같이 표현하고 있다. 법왕금살(法王禁殺)에는 주(註)를 인용하여 부여의 미륵사를 왕과 왕비가 함께 지은 절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부여의 미륵사와 익산의 미륵사를 왕과 왕비가 함께 지었고, 왕흥사라 하는가 하면 미륵사라 한다고 하였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지역에 두개의 절을 함께 지을 수도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익산의 미륵사지는 관대한 넓이에 석탑(石塔)과 당간지주가 있어 미륵사지라 할만하다.

그러나 부여의 미륵사(왕흥사)지는 물가에 있어 좋으나 미륵사라 호칭할만한 것이 없었다.

이와 같이 현장을 확인함이 없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3) 백제의 무왕만을 인정하고, 후마한의 무강왕을 무시했다.

삼국시대 백제 제29세 무왕(武王)은 제28세 법왕의 아들인데, 『삼국유사』 무왕 편에서 말하는 무왕(武王)은 독녀(獨女)가 연못의 용(龍)과 관계하여 낳은 사람이다.

백제 무왕의 이름은 장(璋)인데, 후마한 무강왕의 이름은 기준(箕準)이다.

후마한 백제의 무강왕과 삼국시대 백제의 무왕은 다른 사람인 것이다.

『삼국유사』 무왕 편의 주(注)를 보면 “고본(古本)에는 무강(武康)이라 하였으나 잘못이다.

백제에는 무강(武康)이 없다”하여 일연(一然) 스님은 전백제와 무강왕을 무시하고 후백제와 무왕만을 인정했다.

우리 민족의 본원사상을 무시하고 외래사상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준왕이 쌓았다는 익산지역 최대규모의 기준성 (미륵산성 또는 용화산성, 금마면 신용리, 1,822m) 전북기념물 제12호

4) 백제 무왕의 익산별도 설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삼국시대 백제의 무왕이 익산에 다른 수도를 설치하여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는 학설이 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 권11, 전라도 익산 편을 보면 “익산은 본래 백제의 금마이니 무강왕 때에 성을 쌓고 다른 수도를 설치하여 금마저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도 “백제의 무광왕이 지모밀지에 천도하여 정사를 새로이 경영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삼국의 하나인 백제의 무왕이 익산에 다른 수도를 설치하고 미륵사를 창건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이를 비판하면, 후마한에 백제가 있었고, 삼국시대에도 백제가 있었다.

그리고 후마한 시대의 무강왕(武康王)과 삼국시대 백제의 무왕(武王)은 다른 사람인 것이다. 이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국시대 백제의 무왕이 익산에 별도를 설치하였다 함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왜곡인 것이다.

더욱이 무왕이 남천(南遷)하였다거나, 익산 금마로 천도하였거나, 다른 수도를 설치하여 절을 지었다는 기록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무왕의 재위기간 42년을 보면 전라북도 익산에 다른 수도를 설치할만한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왜냐하면 재위기간 중 고구려와 치른 전쟁과 신라와 치른 전쟁이 『삼국사기』에만 보아도 무려 11차례의 전쟁이 있었으며, 그 사이에 각산성(角山城)과 적암성(赤堖城)의 축조(築造), 사비성(泗沘城)과 마천성(馬川城)의 개축이 있었고, 부여에 미륵사(彌勒寺) 일명 왕흥사(王興寺)를 35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또한 그 사이에 기근과 흉년도 있었다.

이를 생각하면 삼국시대 백제의 무왕이 익산에 다른 수도를 설치하였다 함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 무왕 편과 김정호의 『대동지지』와 <관세음응험기>에 근거하여 삼국의 하나인 백제의 무왕이 익산 금마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는 함은 고대사를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역사의 왜곡이라 할 수 있다.

5. 웃점 · 결론 · 학풍

이상에 서술한 바를 요약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면

- ① 익산의 금마는 후마한의 옛 수도(首都)였다.
- ② 익산의 미륵사는 후마한의 백제 무강왕이 창건한 절이다.
- ③ 부여의 미륵사는 삼국시대 백제 무왕이 창건한 절이다.
- ④ 백제에 전백제(前百濟)와 후백제(後百濟)가 있었다.
- ⑤ 마한의 무강왕과 삼국 백제의 무왕은 별개의 인물이다.
- ⑥ 선화부인은 무왕의 부인이 아니라 무강왕의 부인이다.
- ⑦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쌍릉은 무왕과 왕후의 릉이 아니라 무강왕과 선화부인의 릉이다.
- ⑧ 태고시대의 우리나라에 고불교인 천교(天敎)가 있었다.

위의 여덟 가지 사실을 아울러 판단하면, “금마는 후마한의 수도로서 용화산 앞의 폐미륵사(廢彌勒寺)는 후마한 백제의 무강왕과 왕후 선화부인이 창건한 절로서 천교의 가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북 익산 금마의 폐미륵사는 인도불교 전래되기 이전 우리민족의 본원사찰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전북 익산 금마는 월지국(月支國)으로서 북천축(北天竺)이며 종교의 요람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과 국사학계는 필자의 『환단고기』 인용을 빙자하여 무조건 본 연구를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괴이한 학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한다.

- 1) 우리나라의 학풍은 우리 것을 무시하고 남의 것을 무조건 동경하는 사대주의 학풍이 아닌가?
- 2) 우리나라의 학풍은 어려운 것은 회피하고 쉬운 것만을 찾는 안이한 학풍이 아닌가?
- 3) 우리나라의 학풍은 돈만 많이 있으면, 명예를 살 수 있다는 비도덕적 학풍이 아닌가?
- 4) 우리나라의 학풍은 처세를 잘하고 상을 받으면, 그것을 좋아하는 이기주의 학풍이 아닌가?
- 5) 진리보다도 다수가 좋아하면, 그것이 정도라는 인정하는 편파적인 학풍이 아닌가?
- 6) 내가 좋으면 좋아하고, 내가 싫으면 싫어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적인 학풍이 아닌가? 하고 질문한다.

훌륭한 어머니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오고, 훌륭한 스승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교육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민족경전 삼륜(三倫)에 사정도경(師正徒敬)이란 말이 있다. 깊이 숙고해주기 바란다.

<중앙종친회장 동정>

월포공종중 정기총회 참석 및 환담

세일재 보수유지를 위한 협조 및 지원 등 논의



추태회장(우측)이 인사말을 하고있다(좌측 광구회장)

중앙종친회 추태회장은 지난 2월 9일 청주 여명회관에서 개최된 월포공종중(회장 광구)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종사 현안과 발전을 위한 의견과 환담을 나누었다.

그동안 시조묘역을 비롯한 선조의 유물과 유적의 관리를 위한 월포공종중의 성

원에 감사함을 전하고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세일재와 관리사의 상태가 조속히 보수를 해야만 하는 시급한 상황임을 역설하고 월포공종중에서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판서공송산종중 이사회 참석 및 환담

종사 현안 및 발전방안 등 논의



추태회장(중앙), 상영회장(우측 첫 번째)

중앙종친회 추태회장은 지난 2월 7일 의정부 영상빌딩에 소재한 판서공송산종중(회장 상영)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종사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환담을 나누었다.

특히 수익종재 활용의 모범사례에 대한 소개와 의견을 나누었으며 부천에서 노인

요양사업을 운영 중인 이양공파문중(회장 용진)을 방문하여 관련사업의 운영에 대한 현황을 듣고 견학도 하였다.

추태회장은 그동안 종사운영과 발전을 위한 성원에 감사함을 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韓儉의 配, 竹山朴氏 節婦旌門



죽산박씨 절부정문 전경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에 세워진 죽산박씨 절부정문은 조선 인조14년(1636년) 병자호란 때 순절한 박씨부인(검참공파 19세 한검의 配)의 애국적인 정절을 기리기 위하여 인조17년에 건립된 정문이다.

광주 조월면 용수리에서 태어난 죽산박씨는 어릴 때부터 용모가 곱고 언행이 엄전하여 칭송이 높았으며, 서울 성동구 오금동의 청주한씨 집안으로 출가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편 한검(韓儉)은 싸움터로 나가고 박씨부인은 이천시 수남리로 피난을 오게 되었다.

이때 남편은 남한산성 전투에 참가하여 청군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박씨부인이 남편의 전사소식을 들은 얼마 뒤 피난지인 수남리에도 적병이 들이닥쳤다.

적병을 보자 통분한 마음을 참지 못한

박씨부인은 칼을 빼어들고 때마침 지나가던 적병 3명을 참살하였다. 그리고 청나라 오랑캐 놈들의 피가 더럽다하여 피 묻은 칼을 깨끗이 씻어낸 후 자신도 그 칼로 전사한 남편의 뒤를 따라 자결하니 그 때 나이 29세였다고 한다.

난이 끝난 후 나라에서는 박씨부인의 애국적인 단성과 절개를 높이 기리기 위하여 인조17년 10월 정문을 내렸으며 후손들이 정각을 지어 보호해 왔다.

맞배지붕에 한식기와를 얹은 이 정문 안에는 「절부 증통정대부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한검지처 증숙부인 죽산박씨 지려 승정집이년 기묘시월 아인묘조 명정」이라 새겨진 현판이 걸려있어 자랑스럽게 보존하고 있다.

한검(韓儉) - 字 士伯, 선조25년 1592~인조14년 1636, 검교참판공파 19세

(검참공파회장 진수)

가제

청주한씨 문중 및 광역시도 추천
중앙종친회 선정, 2020년도

【淸州韓씨인명록】

중앙종친회 주관, 2020년도<청한 인명록>을 발간합니다.

이에 따른 준비 및 필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 약식 이력서 (주소 및 연락처 등 인명록에 기재 동의 여부 필히 체크)
주소, 연락처, 주요학력 및 경력, 상훈사항
종파문중 및 세수
직책 (중앙종친회 및 종파문중 또는 광역시도 조직)
- 약식 직계 계보도 (희망자 인명록에 기재)
손 - 자 - 본인 - 부 - 조 ----- 종파 중시조
- 반명함판 사진 1매
- 종파문중회장 - 중시조 묘소, 사진 및 위치, 중시조 유사 (축약), 세향일
- 종파문중별로 게재 (조직단위별로 홍보, 취합)
- 종파문중 및 광역시·도 단위별 조직도
- 종사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종원 추천
- 관련 자료는 중앙종친회(또는 종파문중 및 지역종친회)로 송부
- 보급가 : 2만 ~ 3만원 예정
- 세부 안내문은 별도 송부 예정임 (임원 및 대의원)
- 기타사항은 중앙종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20-6370)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안내

◆회비·헌성금·종보대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인터넷족보 수단금

-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무강왕릉수호기금

- 국민은행 009902-04-323878 예금주 한추태

- 국민은행 624201-04-487233 예금주 무강왕릉수호법대책위원회